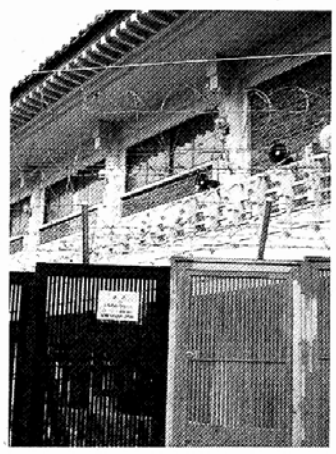
태고종 '1종단 2총무원'

승려대회측 비상회의 출범…종무행정 처리 착수

현총무원측 임시종회 소집 주동자 중징계 방침





◇전국 승려대회에서 '비상대책 회의'를 출범시킨 반총무원측은 서울 창신동 원각사에 임시 총무원(사진 왼쪽)을 차렸다. 한편 성북동 총무원 청사는 무력접수를 막기 위해 철문이 굳게 닫혀있고 가시철망이 둘러져 있다.(오른쪽)

태고종이 7월 30일 열린 전국 승려대회를 기점으로 1종단 2총무원 체제로 양분됐다.

혜초 총무원장의 현 총무원측과 창신동 원각사에 새로 총무원을 차린 비상대책회의측은 '대화창구는 열어 놓았다'면서도 상대측에 대한 비난과 징계등 강경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타협이나 종단정상화는 당분간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태고종 종단 바로세우기 연합'은 30일 전국승려대회를 열어 '비상대책회의'를 출범시키고 의장겸 총무원장에 철화 스님(마산 원각사 주지)을 선출했다. 서울 창신동 원각사에 사무실을 마련한 비상대책회의는 8일 회의를 개최하고 총무부장에 지홍, 교무에 법성, 재무에 호명 스님 등 부장 및 국장 인선을 완료, 발표했다. 비상대책회의는 또한 원각사에서 종도들의 민원사항(재직 증명서, 사찰등록 증명서 등 각종 서류 발급)을 처리할 수 있는 종무행정을 처리하기로 하고 사찰의 신규등록 업무와 행자 수계산림도 빠른시일내에 실시하기로 했다. 의장 철화스님은 "현재 종단 비상사태에 대한 책임이 몇몇 문제승려들에게 있는 만큼 종단에 중대한 해종행위를 범하였으므로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성북동 총무원 청사가 있는 중앙불교회관 및 삼천불전에서 하루속히 퇴거시키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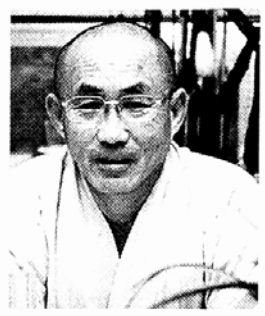
한편 현 총무원장 혜초스님은 임시중앙종회를 소집, 제82회 임시종회가 14일 오전 11시 성북구 총무원 청사에서 열린다. 이번 종회의 안건은 △서면결의 추인 △해종행위 종회의원 징계 △종단소요사태 처리 특별법 제정 △공제회 등 비리관련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으로 되어 있어 승려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 방안이 주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종회의장 운곡스님은 지난 1일 △현 혜초 총무원장 대표성 재확인 △30일 승려대회 결의 사항 무효 △승려대회 주동자 및 적극가담자 종현종법에 의거 징계 건의 △사정원장에 법장스님 인준 등의 결의내용을 서면으로 각 종회의원들에 보낸 바 있다.

한편 태고종 바로세우기 연합 승려대회 준비위의 주도로 7월 30일 서울 백련사에서 열린 태고종 전국승려대회는 스님 200여명(승려대회측 400명, 총무원측 150명 주장)이 참가해 대회직후 성북동 총무원 청사를 접수하려 했으나 총무원측의 완강한 저항으로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청사 대문이 부서지기는 했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사암련 회장에 듣는다

3사 법당건립등 군포교

영천불교사암련 법의스님



"영천시와 인접한 경산시, 군위군, 청송군 불교사암연합회와 연합단체를 결성해 경북지역의 불교중흥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천시불교사암연합회 회장이자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주지인 법의스님은 조계종 10교구 본 말사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종파를 초월해 인접한 2개시 2개군이 연합, 보다 효과적인 포교활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20여년의 전통을 가진 영천불교사암연합회의 회원사찰은 조계종 전통사찰 7개 등 모두 30여개, 4개 지자체가 묶여질 경우 조계종 말사 46여개를 포함, 모두 100여개에 달하게 된다.

4개시군 사암련 통합추진

삼성현 사적공원 조성키로

그러나 은해사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 사찰들은 삼군사관학교, 201여단, 육군통합병원 등 12개의 군법당을 지원하는 한편 주도적으로 불교대구방송을 후원하는 등 어느 지역보다 지역 포교에 열성을 쏟아왔다. 특히 96년 결성된 은해사법사단은 군법당 법사지원, 교재 편찬, 교양대학 개설 등에 앞장서면서 군불자 포교에 큰 역할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은해사 승가대학원 강사스님들(14명)이 법회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부터 고승초청 시민대법회를 개최하고 은해사에서 개산대재를 개최하는 등 불교붐 조성에 나선 법의스님은 교구 산하의 원효 설총 일연 3성현 추모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불교문화유적에 대한 관심도 이끌어낼 계획. 정부의 보조아래 원효성사의 탄생지인 경산 제석사, 설총이 자란 곳인 경산 발룡사,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군위 인각사를 불교성지로 조성하고 3성현 사적공원도 조성한다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이다.

지난해 인근 교구 본말사들의 협조로 7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영천 삼군사관학교 법당을 건립하고 단청불사를 진행중인 법의스님은 대구시내에 노인복지관과 불교회관을 겸한 6층, 건평 1,000평 규모의 대성사 건립을 위해 또다시 원력을 쏟고 있다.

법의 스님은 "군 포교와 방송포교, 복지불사를 위해서는 불자들의 참여와 후원이 절실하다"며 실천하는 불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은해사=김재경 기자



◇묘각사 설법전의 일부가 무너져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극락전(왼쪽) 역시 건물이 낡아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묘각사 극락전 붕괴위기

무너진 설법전도 1년 방치후 늑장 보수

조계종 제10교구 산하 전통사찰인 경북 영천시 자양면 용화리 묘각사(주지 동승)의 설법전(아미타 삼성전)이 붕괴된 채 10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극락전도 건물이 낡아 보수공사가 시급하다.

묘각사의 설법전 건물은 수년전부터 붕괴 위험에 직면해 그동안 버팀목으로 받쳐왔지만 지난해 10월 10일 ㄷ자형 건물의 일부분이 완전히 붕괴됐다. 수년전부터 관계기관에 설법전의 해체·보수를 요구했으나 예산사정 때문에 지원이 되지않다가, 지난 7월 21일 뒤늦게 시·도비 9,150만원을 지원받는 등 모두 2억3150만원의 예산으로 설법전 복원불사의 기공식을 뒤늦게 갖게 되었다.

그러나 400여년전 건립된 극락전 역시 지붕 곳곳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보수공사가 시급한 실정. 묘각사는 내년부터 극락전 복원불사에 나설 예정이지만 예산부족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묘각사 주지 동승스님은 "묘각사 설법전은 건물 형태가 ㄷ자형의 특이한 고찰이며, 이 보다 더 오래된 극락전 역시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관계기관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054)336-6633 영천=김재경 기자

양산 천성산 임도 복구

양산시의 무분별한 임도개설로 몸살을 앓아 오던 천성산의 임도가 원상 복구된다. (본지 328호 9면 기사 참조)

7월 24일 양산시가 경내지 포함 임도 원상 복구, 추가임도 개설 백지화라는 내원사측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수행환경과 생태계 보존의 길이 열린 것이다.

천성산 습지보전 및 불법임도개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지율)는 7월 30일 내원사에서 활동보고대회를 가진 자리에서 4일 양산시가 내원사의 허락 없이 경내지에 개설된 임도를 원상복구하고 추가 임도 개설 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도 양산시는 그동안 공동대책위에서 요구해 왔던 천성산습지보전지역 선정을 위한 행정적 지원은 물론 천성산 보호를 위해 사찰보호림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동대책위는 11일 양산시 실무자들과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논의하고 이미 개설된 임도에 대해 임도폐쇄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원상복구작업, 주변 임도에 대한 차량출입 통제 등 환경보전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양산=천미희 기자

영산작법보존회 연수

봉서사 영산작법보존회(회장 남파·혜봉사 주지)는 7월 30일부터 10일간 봉서사에서 제21회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교육에는 무형문화재 18호인 일만(전주 실상사 주지)·석정(극락암 주지)스님과 교육원장 보운스님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조기식 전북지사장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지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팔공산에 불교테마공원 만든다

수련관·공연장 등 조성

갓바위 부처님으로 대표되는 팔공산 주변 불교유적지가 불교테마공원으로 거듭난다.

대구시는 지난 84년 동화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된 동화사 주변 동구 용수 도학동 일대 42만3000㎡을 오는 2006년까지 동화사, 파계사, 갓바위 등 주변 불교자원과 연계한 불교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 각종 휴양시설도 크게 확충한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불교테마공원에는 세계불교광장, 불교테마거리, 사이버 3D체험관, 참선수련관, 야외공연장, 이린이놀이터, 관광안내소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세계불교광장에는 한국불교, 중국불교, 인도불교, 일본불교의 특징을 살려 소규모 광장을 건립하고 불교테마거리에는 연등 가로등을 조성해 불교이미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동화사와 연계해 대불 지하에 진신사리 등 각종 불교귀중품으로 대거 보관·전시하는 성보박물관을 국내 최초로 건립키로 했다. 김재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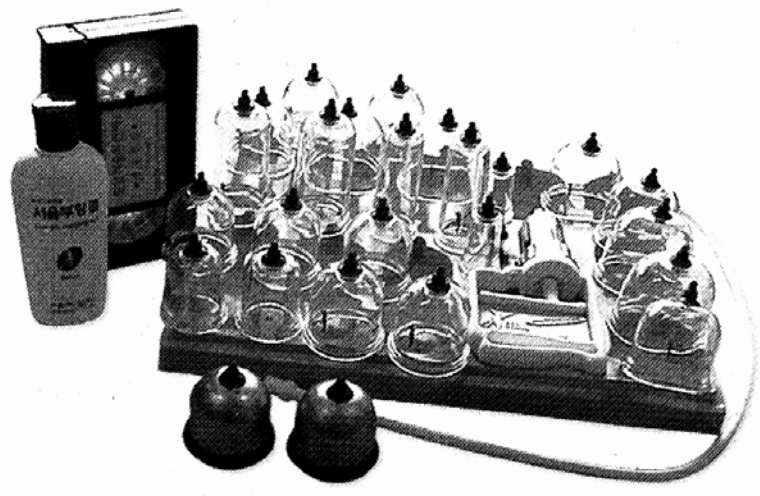
석왕사 불교대학 개설

9월7일 개강…신입생 모집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가 처음으로 불교대학을 개설했다. 석왕사는 9월 7일부터 초 중 고급과정 각 8주간 6개월 과정의 불교교양대학(주 야간반)을 개설하고 제1기 신입생 모집에 들어갔다.

석왕사 보현관에서 매주 금요일 주 1회 120분씩 진행되는 교양대학은 근본불교, 불교사, 금강경, 아함경, 비교종교학, 불교사회복지, 장례문화 등 치계적인 신도교육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다. (032)668-0076 김재경 기자

불자님의 건강을 藥師附缸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 주의 : 부항은 소독이 중요합니다. 삶아서 사용하세요
타원부항의 신비를 느껴 보세요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buddha.co.kr